

“정치 아카데미 만들어 지역 인재 발굴”

한나라, 호남특위·석패율제 앞세워 호남 구애 공세

정운천 특위장 “중앙-호남 가교 역할 할 것”

한나라당은 23일 최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발전특위)와 석패율제 도입을 앞세워 광주에서 ‘호남 구애’를 펼쳤다.

호남발전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프로그램 등 정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인재발굴 및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과 부위원장(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한 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호남발전특위의 역할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방치해 둔 광주·전남지역을 정거점화 하겠다”라며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의 창구 역할과 함께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당선자를 내기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재를 발굴하려 해도 선거에서 떨어지면 나오지 않는다. 제도 도입에 공감각이 이뤄지면 인재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호남발전특위는 앞으로 지역내의 인재발굴 및 인재양성, 조직 강화를 위한 당원 연수 등을 통해 한나라당이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목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호남발전 특위는 일반적인 특위가 아닌 현재 사 고지구당으로 위원장이 공식인 광주, 전남, 전북 시·도당을 대체하는 비상 의결기구”라며 “앞으로 정치 개혁프 로그램, 중앙과 호남의 통로 역할, 인 재발굴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갖춰 단계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나갈 계 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인물들을 추천받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중앙당과 지도부와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위해 사무총장이 직접 부위원장도 맡았다”라며 “앞으로 지역 당협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인물 교체를 통한 변화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호남 에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인물 론 밖에 없다”라며 “기존 인물을 쇄 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물도 재 평가하고, 각 분야에서, 지역의 대표 성을 갖는 인물을 백방으로 발굴해 필요하면 경력관리까지 해가며 새로 운 인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나라당의 호남발전특위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관심과 전폭 적인 지원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인재상을 찾기 위한 하나의 선거전략 아 니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23일 광주를 방문한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과 원희룡 사무총장이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역할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 호남미래연대(이장장 정용화)는 2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미덕 광주 장 애우 권익문제연구소장, 김영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재보선 야권연대 막판 고비

중재안 민주·민노당 ‘수용’, 국참당 ‘난감’

4·27 재보선에서의 야권연대 협상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연합공천 협상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중재안(국민참여경선 50% + 여론조사 50%)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이어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안을 받아들 이기로 한 것은 후보단일화 없이 경 남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 때문으 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 진영의 중재안이 “최악은 아니다”라는 판단과 함께 더 이상 협상이 지연될 경우, 시간 상 국 민참여경선 제도 자체를 도입하기 어

렵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권연대 방안을 놓고 100% 국민참여경선 도입을 주장했 었다.

이에 반해, 100% 여론조사 경선을 주장해 왔던 국민참여당은 시민사회 진영의 중재안에 대해 난감하다는 반 응이다.

국민참여당은 당세가 민주당에 비 해 크게 약하다는 점에서 조직 동원 의 영향이 큰 국민참여경선 방안을 수용한다면 김해 을의 야권 단일후보 를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교두보를 확보, 내년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노리고 있는 국민참여당 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수 용한 시민사회 진영의 중재안을 거부 할 경우, 국민참여당이 야권연대 협 상 결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 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더구나, 경남 김해 을 국회의원 보 궐선거 결과가 야권 후보의 난립 등 으로 한나라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 국민참여당의 추후 정치적 입지는 크 게 좁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민참여 당이 결국 시민사회 진영의 중재안을 수용하거나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 등 을 통해 야권연대를 위한 후보단일화 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분당을 보선 ‘안갯속’

여권 ‘정운찬 카드’ 표류 민주 썬 불출마 공식화

4·27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보 궐선거 공천이 여야 모두 오리무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정운찬 전 국무총리 대 민주당은 손학규 대 표’ 카드가 사실상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 전 총리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여 권 내 논란이 겨우 진정 국면으 로 접어드는 시점에 ‘신정아 변수’ 가 터져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 신씨가 자서전에서 정 전 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부적절

한 처신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 다. 정 전 총리 측은 “일고의 가치 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정운찬 영 입론’에 불만을 표시했던 한나라 당 내 일부 지도부에게는 ‘불가론’ 의 명분을 확실하게 주었다.

한 최고위원은 23일 “더 이상 당 에서 정 전 총리를 후보로 거론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정운찬 카드 로 접어드는 시점에 ‘신정아 변수’ 가 터져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

하지만,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자서전 내용으로 정 전 총리 카드를 접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정 전 총리의 경쟁력을 감안해야 한 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분 당을 불출마가 공식화되고 있다.

손 대표 본인이 직접 불출마를 못박은 것은 아니지만 측근 그룹 에서 불출마를 공언하고 나선 것 이다. 채영 대변인은 이날 손 대표 의 분당 출마 여부에 대해 “당연히 안 나간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두언 “역차별 해야 지역주의 타파”

한나라 지도부, 전주서 호남 민심잡기

한나라당은 23일 전북 전주에서 최 고위원회의를 열어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지난 1월 광주에 이어 한나라당 지 도부의 두 번째 호남 방문으로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모지 인 호남을 적극 행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나경원·정두언·정운천·박성효 최고

위원, 심재철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 무총장 등 지도부의 출동 중 호남 전 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지역차별과 석패율제, 새만금사업 등 이 주제가 됐다.

안 대표는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호남이 민주주의의 완결에도 큰 역할 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며 지역성 타파를 주문한 뒤 “한나라 당에 대한 호남 정서가 과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겠다”, “유능한 인 재를 발굴해 당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는 이어 향후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 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구조가 가치 중심으로 바뀌 는 게 정당주의의 완성”이라며 “석패 율제 도입과 전북 지역에서 한나라 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영남 지역에

서 민주당 의원이 탄생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새만금 사업에 대 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 방조 제와 용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사업은 막힘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인 정두언 최고위원은 “광국병이라고 하는 지역주의가 타 파되려면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종 인사에서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며 서 “공평한 투지” 갖고는 해소 안 되 고 “역차별”을 해야지만 지금까지 차 별이 시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그는 이어 “새만금개발청” 같은 전 담기구와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사 업 추진을 건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석패율제 적극 검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 문제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 표는 “적극 검토하고 실현해야 한다” 는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경남 김해 민주당 선거사무소 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생각도 지역정당을 넘어 전국정당 으로 가는 것이었다”고 지적한 뒤 “석패율 제도가 이런 점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 혔다.

그는 다만 “석패율제 도입으로 비 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석패율제가 중진 정치인 구 제를 위한 안전장치로 존재했던 일본 사례를 극복해야 하며 지역에서 적극 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새로운 정치 인의 발굴과 진입에 도움이 되길 바 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해 재 보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 시민단체 중재안을 수용기로 한데 대해 “민주 개혁세력의 단일화와 야권통합을 위 한 총정에서 안보와 희생의 정신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며 “다른 야당도 상생의 정치로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재생에너지 조세감면 김성곤, 특례법안 발의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조세감면 관련 법안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조세감면 관련 법안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내 제작 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 레스토랑
- 영화, 연극, 공연
-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 골프 예약
- 카페
-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 모바일 게임 어플
- 다크 오브 나이트
- 홍보용 어플
- 소셜 커머스 '티켓몬키'
- 스포츠 게임 천국
- 외 다수
- 월 오브 드레곤
- 진상 액션
- 아쿠아 랜드
- 몬스터 체이스
-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쉐이커스 070-7581-7766
010-3549-9358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드림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얼마 전 우리나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암의 사망 원인의 1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한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각종 발암물질로 뒤 덮혀 있으며 학계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매스컴에서 암은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것과 후천적으로 오래된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각종환경에 기인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암의 공포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기에,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항상 내 가슴에 암이 있다고 염려한다. 하지만 암은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행된 되어 치료시기를 놓치어 얼마 안 가서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뒷받침 될 경우엔 오랜 기간 방사선 항암치료 및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평생 온 가족이 같이 매달려 살지만 그렇기 않은 경우엔 치료비 감당을 못하여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학계에 알려진 암의 발생과정은 살펴보면 암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 속 DNA가 손상을 입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암의 시작이다.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난다면 종양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악성종양이 된다. 돌연변이가 될 세포가 증식하는 가운데서 종양이 생겨나게 되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암 덩어리가 되기까지 통상10년 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 분 석연구를 통해 선천적 후천적인 암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기법은 주로 대형 암 전문병원에서 고가인 300만~3000만 원으 로 검사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검사였다.

하지만 진스토리에서는 벤처기업 다이오진 이 개발 특허 등록 된 첨단기법인 암유전자분석 (다리오진 CG Check: 헬싱DNA 총량검사, 유전자 메틸화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및 추가 DNA 검사를 간단한 체혈만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암유전자분석검사를 통해 암 유전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CT나 MRI 등의 현 단계가 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원 기술로 1Cm

의 암이 되어야 파악이 가능하여 일부 전이 가 되어 진 상태에서 발견) 생성 초기의 암 발견으로 사전에 치유 가능케 하고 암 억제 유전자의 복구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섬세한 나 운동 및 건강한 생활을 통해 몸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를 통해 건강하다고 자신 하던 분들에게서도 선 종성 용종, 미세암 또는 초기암이 발견, 제거하여 새롭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 진 스토리 암유전자 조기 검사는 이미 암으로 형성 된 것을 발견하 기 보다는 암으로 형성 되기 전의 상태를 파악 해 주어 암을 사전에 차단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수명 연장 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암환자가 계시면 분, 암 치료 후 재발을 두려워하시는 분, 환경호르몬에 노출 되신 분, 장기적인 스트레스고 고생하시는 분, 용종이나 선종 을 제거하신 분들은 꼭 받아 보아야 할 검사가 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건강 과 부모님께 건강 효 도상품으로 인기가 곧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들의 종합검진과 아울러 필수적인 암 유전자 검사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스토리에서는 이 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컨설팅 할 GSC(진스토리 컨설턴트)도 모집한다.

(주)진스토리 | 문의전화: 062-385-2212~3 www.genestory.kr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동 172-1 3층